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 -

1.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2.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학습 체계다.

-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 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

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경향(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4.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별 학습자원을 추천, 일과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5. 셋째, 정부·민간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 자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다.

-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정부·민간 우수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6. 이 외에도 공무원 창작자(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병행해 학습과 업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연계를 통한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